

탑의 진화

④ 중국의 불탑(1)

남방의 '영구매납' 안 따르고 '친견' 택해

부처님의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시작된 불탑은 남방 불교에서는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형상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북방불교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불교 수용 이전부터 어느 정도 체계화된 고층 누각의 건조 기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불교의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는 다층건축식 불탑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바로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 즉 실크로드 지역에서의 변화를 시발점으로 중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 만나 점차적으로, 또 다각도로 바뀌었다.

중국에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가 처음으로 전해진 사실은 당(唐)의 도선(道宣)에 의해 저술된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에 사리 수용과 관련된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한법본내전(漢法本內傳)』에서 이르기부터, 명제(明帝:227~239)가 이미 불법을 널리 펴고 절을 세우고 스님에게 도점을 주니 오악(五嶽)의 도관에 있는 모든 도사들이 재주를 시험하기를 청하였다. …… 이때에 서역에서 가지고 온 사리는 오색으로 광명을 발하며 공중으로 높게 올라가 달개와 같은 형상으로 빙빙 돌며 햇빛을 가렸다. 마등(摩騰) 나한은 뛰어올라 높게 날며 신통력을 자유롭게 보였다. 하늘에서는 꽃비를 내리 부처님의 사리와 스님을 머리 위에 흠뻑 뿌렸고, 하늘나라의 음악소리가 들려오니 변화하게 모인 사람들은 신심을 느끼게 되었다. 『대정신수대장경』(52권 410쪽 중단)

위의 기록으로 서역에서 전래된 사리가 신통력을 보임으로써 균중을 교화시켰다는 사실과, 불교 전래 당시 기적 같은 종교적 신비성을 통한 정착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에 불탑신앙이 예고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많은 문헌에 사리신앙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는 '태시(秦始) 원년(265)에 서역 오장국의 담파라스님이 낙양에 도착해 법운사(法雲寺)를 창건하고, 이곳에 부처님의 사리와 치아(佛牙)를 비롯해 경전과 불상 등도 봉안했다. 『대정신수대장경』(51권 1015쪽 상단)라는 기록이 실려져 있다. 또, 『고승전』에 의하면,

오나라 적오 10년에 처음으로 불상을 모시고 도를 행하였다. 손권이 즉시 강승회를 불러 "어떤 영험이 있는가?" 하고 묻자, 강승회가 답하길, "여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지 어느덧 천 년이 흘렀습니다. 유골인 사리는 신비하게 빛을 발하여 사방을 비춥니다. 예전에 아육왕은 탑을 세운 것이 무려 8만 4천입니다. 대개 탑사를 세우는 것은 여래께서 남기신 유향(遺化)을 드러내려

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손권은 과장되고 허황하다 생각해서 강승회에게 말하였다. "만일 사리를 얻는다면 마땅히 탑사를 세우겠지만, 그것이 헛되고 망령된 말이라면 나라에서 정해진 형벌이 있으리라." 이에 강승회는 7일 동안의 기일을 청하고 그를 따르는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법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이 한 번의 일에 달려 있다. 지금 지극한 정성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는 모두 고탄방에서 결재하면서 구리로 만든 병을 상에 놓고 향을 피워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다. 7일 저녁 무렵이 되어도 보이는 바가 없자, 모두들 두려움에 떨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오경(五更)이 되자 문득 병 속에서 달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강

남방 불탑-불교사상 표현

중국 불탑-사리신상 배경

남방의 '영구매납' 안 따르고

친견방식 택했던 것으로 짐작

초창기 동한시대 불탑 전무

남북조시대 많은 불탑 조성

현존 最古-송북사 9층 석탑

'누각식' 이 역사 길고 가장 많아

탑 내부 계단으로 정상까지 이동

수양건 아쇼카왕 이어 113개 조성

기록만 남고 전란으로 모두 소실

승회가 가서 살펴보니 과연 사리가 들어 있었다. 다음날 강승회가 손권에게 이를 바치니 조정에 모인 신하들이 모두 모여 바라보았는데, 오색의 찬란한 광채가 사리병 위로 뿜쳐 나왔다. 손권이 직접 손으로 구리 정반 위에 병을 기울이자 사리가 부딪쳐 정반이 곧 깨어지고 말았다. 이에 손권이 숙연해져 강승회가 말하길 "사리의 신비로운 위엄이 어찌 다만 광채를 발하는 일에만 그치겠습니까? 세상의 중말을 고하는 불로도 감히 태을 수 없고, 금강의 방망이로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대정신수대장경』(50권 325쪽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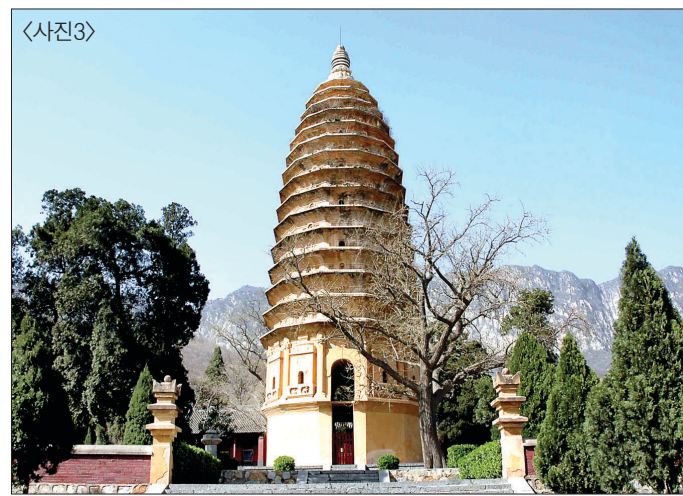
이처럼 중국 삼국시대의 역경으로 오나라에 불교를 전파한 강승회(?~280)는 사리를 '여래가 남긴 유향'이라고 정의하면서 부처님과 동일한 것으로 사리를 해석하



송북사 9층석탑



송북사 9층탑 상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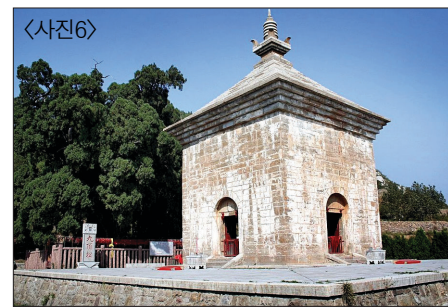
송악사탑 전경



송악사탑 내부의 최근에 모신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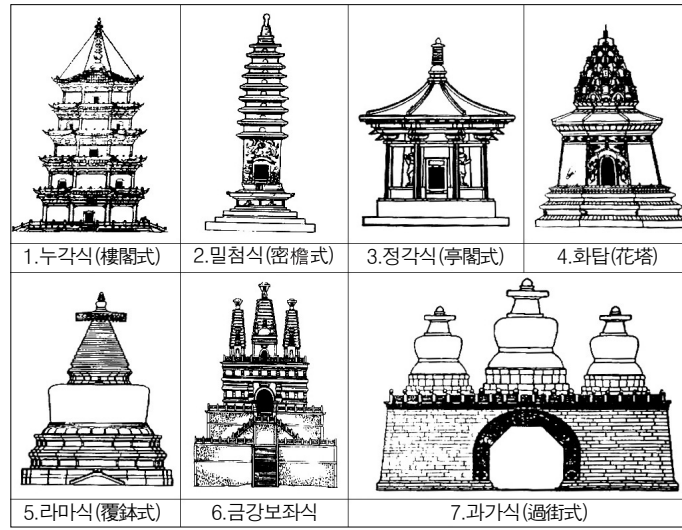


송악사탑 지공이 훼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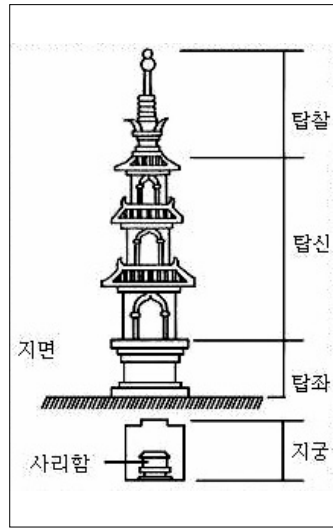


산동성에 있는 신통사 사문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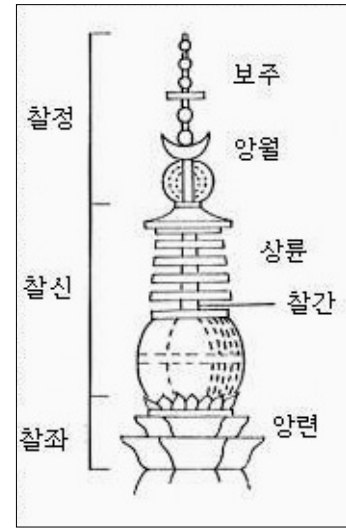
〈표1〉 중국 불탑의 형식 구분



〈표2〉



〈표3〉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혹은 남방 불교 지역에서 사리를 탑신 안에 영구히 매납(埋納)하던 방식과는 달리 불교가 중국에 전래될 당시에는 사리를 친견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는 동한(東漢)시대(25~220)의 불탑으로 현존하는 것은 찾을 수 없지만, 그 시대의 회화에서 당시 인도식 반구 형태의 탑의 형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불탑의 조형적 형상은 누각식을 비롯하여, 밀점식, 정각식, 라마식, 화식, 금강보좌식, 과가식, 〈표1〉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시대별로 각 형식의 불탑의 예를 중국 불탑의 변천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 역사에서 삼국시대(220~280)를 거쳐 남북조시대(420~589)에는 많은 불탑이 조성되었다. 현존 하는 유물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송북사(崇福寺) 9층석탑(사진1)으로 북위 천안왕조(466)에 조성된 것이다. 이 불탑은 원래는 산서성의 송북사에 있었으나, 중일전쟁 중에 일본사람들에 의해 탑신부와 상륜부가 분리되어 탑신부는 일본으로 반출되어 도쿄 황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그 후 일본 패망과 함께 중국으로 반환되어 남경박물관에 잠시 보관되었다가 현재는 대만의 타이페이 대북국립역사박물관(台北國立歷史博物館)에 전시되어 있다. 상륜부는 대형 중국 산서성 사주시 문화재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학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불탑의 현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요즘 들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불탑의 탑신은 높이가 약 153cm로 4개의 사각형 석회암으로 구성되어있다. 기

단부, 1층에서 7층까지의 중간 탑신부, 8층에서 9층까지의 상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된 이 4부분의 조각이 조립식으로 합쳐져 하나의 완전한 탑을 이루고 있다. 기단 정면에는 공양 올리는 사람과 향로, 사자가 조각되어 있고, 측면에는 남녀 인물상이 크게 조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누각식 불탑으로 조성되어있으며, 각 층마다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각각 조각하였다. 특히, 상륜부에는 석가모니불상과 다보불상이 조각되어 법보경의 견보탑품 결설 '이 불명좌'의 도상적 표현(사진2)으로 추측되어 우리나라 불교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성과도 연관성을 짐작 할 수 있다. 이 불탑은 참배객들이 스스로 신앙심이 돈독

하게 될 정도로 정교한 불상조각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남북조 시대에 조성된 누각식 탑의 또 다른 예로는 하남성 등봉시 송악의 송악사탑(嵩岳寺塔)(사진3)을 들 수 있다. 이 탑은 북위 효 명제 정광연간(520년)에 조성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돌탑(전탑)으로, 높이는 40m이며, 15층이다.

이러한 누각식탑은 한족(漢族) 특유의 불탑 건축 양식으로 중국의 불탑 중에 가장 역사가 길며 형태에 있어서도 가장 높고 크며 그 수량도 가장 많다. 탑 내부는 일반적으로 벽돌모양의 돌이나 목재의 계단이 있어서 탑의 정상까지 올라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탑의 층수와 내부누각의 층은 일치한다. 그러나 송악사탑의 내부는 소위 통층으로 외부의 층수와 내부누각의 층은 단층의 구조를 하고 있다. 현재 내부 중앙에는 최근에 봉안된 불상(사진4)이 있으며, 심하게 훼손된 지공(地宮)(사진5)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누각식 불탑의 형태는 남북조에서 수, 당 시대에는 대다수가 사각형이고, 송대에는 육각, 팔각형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며, 층수는 홀수로 7, 9, 11, 13층이 대세를 이루었다. 〈표2〉, 〈표3〉참조.

고구려와의 패권다툼으로 잘 알려진 수(隋)나라의 초대황제 양견(楊堅 541~604)은 그의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인도 아쇼카왕의 업적을 본받아 3년 동안 82개 사찰에 약 113개의 목탑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다만 수대의 탑으로 산동성에 있는 신통사 사문탑(사진6)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 불탑은 수나라 양제 7년(611년)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석(靑石)으로 겹쳐 쌓은 정방형 정각식(亭閣式) 단층탑이다. 높이는 15m이고 한 변의 길이는 7.4m이다. 사방 벽면의 중앙에 각각 4개의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사문탑이라고 부른다. 탑 내부에는 남쪽으로 보생불(保生佛), 북쪽으로 미묘성불(微妙露佛), 동쪽으로 아촉불(阿瞿佛), 서쪽으로 무량수불(無量壽佛)이 봉안 되어 있다. 1971년 탑 상부에서 '대業七季造' 이란 글자가 새겨진 것이 발견되면서 실제 조성연대를 알 수 있었으며, 탑 내부에서 사리를 담은 사리함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남방 불교권에서의 불탑은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위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즉 불교 사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조성되었다면, 중국에서는 사리 숭배신앙을 근거로 불탑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글·우인보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곁 이



인 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